

# 동물공포증을 겪는 중년여성의 심리분석 단일사례연구

김동태  
한일장신대학교 겸임교수

## A Single Case Study on the Psychological Analysis of a Middle-aged Woman Suffering from Animal Phobia

Dong-Tae Kim

Adjunct Professor, Hanil University & Presbyterian Theological Seminary

**요약** 본 연구는 단일사례로 동물공포증에 대한 이론적 명제를 기반으로 한 도구적 사례연구이다. 지렁이 공포증을 겪는 여성 연구 참여자로부터 아버지에 대한 심리분석을 목적으로 6개의 범주가 도출되었다. '두려운 존재', '늘 따라다니는 여자 문제', '은밀한 부정행위와 충격', '처벌에 대한 두려움', '지렁이 상징과 공포 전위', 그리고 '지렁이 공포증'이다. 무서운 아버지에 의한 처벌 불안이 공포증의 원인 이었다. 연구 참여자에게 지렁이 공포증은 아버지에 대한 두려움이 지렁이에게 전위 된 것으로 지렁이 공포는 아버지의 대리물로 해석된다. 즉 지렁이 공포증은 아버지에 대한 오랫동안 억눌린 두려운 감정이 다시 발현되는 것을 대체하는 도피와 방어 과정으로 이해되어야 하며, 그 상징성은 병적 가족 분위기의 은유적 변형으로 볼 수 있다.

**주제어** 불안장애, 특정 공포증, 동물공포증, 지렁이 공포증, 단일사례연구, 도구적 사례연구

**Abstract** This study is an instrumental case study based on a theoretical proposition on animal phobia as a single case. Six categories were derived for the purpose of psychological analysis of the father of a female research participant suffering from the earthworm phobia. They are 'a fearful existence', 'problems with the woman who is always by her father's side', 'secret adultery and shock', 'fear of punishment', 'symbol for earthworm and fear displacement', and 'earthworm phobia'. Anxiety about punishment from a fearful father was the cause of the phobia. For the study participant, the earthworm phobia was the displacement of her father's fear of earthworm, and the earthworm phobia was interpreted as a substitute for her father. In other words, earthworm phobia should be understood as an escape and defense process as it replaces the re-emergence of long-repressed fearful feeling toward her father, and its symbolism can be seen as a metaphorical transformation of the pathological family atmosphere.

**Key Words** Anxiety Disorder, Specific Phobia, Animal Phobia, Earthworm Phobia, Single Case Study, Instrumental Case Study

Received 28 Mar 2024, Revised 16 Apr 2024

Accepted 19 Apr 2024

Corresponding Author: Dong-Tae Kim  
(Hanil University & Presbyterian Theological Seminary)

Email: dongtae1@hanmail.net

ISSN: 2466-1139(Print)

ISSN: 2714-013X(Online)

© Industrial Promotion Institute. All rights reserved. This is an open-access article distributed under the terms of the Creative Commons Attribution Non-Commercial License (<http://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3.0>), which permits unrestricted non-commercial use, distribution, and reproduction in any medium, provided the original work is properly cited.

## 1. 서론

### 1.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인간에게 불안과 두려움은 자연스러운 것이며, 유용한 정신기제이다. 일상에서 두려움은 다양한 위험을 피하고 생존을 위해 사용되어(Mackay, 2009, 14) [10] 잠재적인 위험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하기 위한 정상적인 감정으로 간주된다(Norton & Antony, 2021, 30)[13]. 그러나 불안해하지 않아도 될 상황에서 불안하거나, 불안이 과도하거나, 그 불안이 지속될 경우 병리적이라 할 수 있다(권석만, 2023, 158)[1]. 이러한 불안은 고통을 초래하여 현실 적응을 어렵게 하고 개인 삶에 손상을 야기시킨다.

동물과 같은 특정한 대상이나 상황에 극심한 공포와 두려움을 나타내는 특정 공포증(specific phobia)은 이러한 병리적 불안 중 하나이다. 이는 대부분 10세 이전 어린 시절에 발생하고, 원인을 기억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대부분 지속되는 경향이 있어 직업과 대인관계 문제, 정신 사회적 기능 손상, 낮은 삶의 질을 경험, 자살 시도와 같은 문제를 드러낸다(APA, 2022, 225-229)[5]. 특히 공포증은 정신병리적 발달의 기초를 형성하기 쉽게 하고(Fairbairn, 2003, 63)[22], 자기에 적 취약성과 자존감 문제 등 광범위한 장애를 유발시키며(Kohut, 2002, 34)[8], 우울, 신체 증상, 성격장애와 같이 다른 장애를 발병할 위험도를 높이는 요인이 된다(APA, 2022, 230)[5].

그러나 특정 공포증의 위험성을 깨닫고 경계해야 할 병리임에도 가볍게 여기고, 잘못 진단되는 경우가 많고(김은정, 이지영, 2016, 36)[2], 두려운 대상을 정확히 이해하고 피하는 방법을 알기 때문에(Mackay, 2009, 20)[10] 치료받는 사례가 매우 드물다는 것이 문제가 된다(김청송, 2015, 218)[3]. 국내 동물공포증 연구가 저조한 이유도 여기에 기인한다고 볼 수 있다. 특정 공포증 중 유병률이 가장 높은 것이 동물공포증이다(Milosevic & McCabe, 2015, 268)[9]. 동물공포증은 여성에서 2배 이상 흔하며(Milosevic & McCabe, 2015, 269)[9], 유아기에 나타나는데 대개 부모에 대한 공포가 동물에게 전위되어 있다(Freud, 2016, 198)[20]. 동물에 대한 아이들의 공포증은 아버지에 대한 공포로(Freud, 2016, 359)[20], 동물공포증의 동물들은 흔히

아버지의 대리물로 여긴다(Freud, 2017, 480)[21]. 즉 아버지에 대한 공포가 전위된 대치물이 동물이라는 것이다(Freud, 2006, 272)[16].

동물공포증이 어린 시절에 발생하고, 남성보다 여성이, 그리고 아버지에 대한 공포로 인한 전위로 보는 주장에 의해, 본 연구는 동물공포증을 겪는 여성을 대상으로 어린 시절 아버지에 대한 심리를 분석하려고 한다. 이를 위해 질적연구에서 사례연구를 통해 동물공포증과 아버지에 대한 심리적 특성을 파악하여 심리·정신적 문제를 초래하는 동물공포증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자 한다.

### 1.2 연구 문제

본 연구는 동물 공포를 겪는 여성의 어린 시절 아버지에 대한 심리적 특성을 이해하는 것이 목적이다. 단일 사례에 대한 질적 접근법으로 연구 참여자의 동물 공포에 대한 특성을 먼저 밝힐 것이고, ‘동물 공포는 어린 시절 아버지에 대한 공포가 전위된 대상’(Freud, 2006, 272)[16]이라는 이론적 명제를 기반으로 “동물 공포를 겪고 있는 여성의 어린 시절 아버지에 대한 경험은 동물 공포와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는가?”를 연구 문제로 둔다.

## 2. 이론적 배경

### 2.1 동물공포증에 대한 이해

공포(fear)는 인간뿐 아니라 살아있는 동물이 가지는 보편적 감정으로 위협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려는 목적이 있다(김은정, 이지영, 2016, 21-23)[2]. 그러나 공포증(Phobia)은 일반적으로 객관적이거나 합리적인 방식으로 처리될 수 없는 현상을 나타낸다. 공포증 반응의 희생자들은 상황이 상대적으로 무해하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Chrzanowski, 2015, 5)[7], 현실성이 없고, 설명할 수도 없고, 합리적이지도 않으며, 통제 밖에 있고, 회피행동을 유발하기 때문에(김은정, 이지영, 2016, 25)[2] 사물이나 상황에 대한 강력하고 비논리적인 두려움을 느낀다(Mackay, 2009, 92)[10]. 더욱이 공포증의 전형적인 감정은 그 사람이 주장하는 위협에 직면했을 때만 발생해서 위험해 보이는 상황을

피하는 한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다(Chrzanowski, 2015, 15)[7]. 이러한 공포증의 하위유형 발병은 5세에서 13세 사이에 나타나는 경향이 있고(Milosevic & McCabe, 2015, 4)[9], 부모의 지나친 비난과 완벽주의적 강요로 인한 불안이나, 부모의 이혼, 유기, 돌봄의 부족으로 불안정감을 일으켜 공포증이 발생할 수 있다(김은정, 이지영, 2016, 86)[2].

공포증은 특정공포증, 사회공포증, 광장공포증으로 구분된다. 동물공포증이 속해 있는 특정 공포증은 명확히 구분할 수 있는 대상이나 상황에 대한 현저하고 비합리적인 두려움과 회피행동을 지속적으로 나타내는 것을 말한다(김은정, 이지영, 2016, 25-26)[2]. 특정 공포증은 광장공포증처럼 자발적인 공황발작이나 두려움이 없고, 사회공포증과 같은 사회적 상황에서 굴욕이나 당혹감에 대한 두려움도 없지만, 두려운 물체나 상황에 직접 노출되면 공황 반응을 유발시킬 수 있다(Bourne, 2015, 22)[6]. 정신질환의 진단 및 통계 편람 제5판 개정판(DSM-5-TR)에서 특정 공포증을 동물형, 자연환경형, 혈액-주사-손상형, 상황형 그리고 정의된 범주에 포함되지 않는 기타형으로 분류한다(APA, 2022, 225)[5]. 그중에서 동물, 높은 곳, 질병, 외상, 죽음의 순서로(김은정, 이지영, 2016, 34)[2] 동물공포증이 가장 유병률이 높은 범주에 들어간다(Milosevic & McCabe, 2015, 268)[9]. 공포증은 모든 연령대에서 시작될 수 있지만, 동물공포증은 다른 공포증보다 더 이른 시기에 시작되어(김은정, 이지영, 2016, 34)[2], 어린 시절에 뿌리를 두고 있다(Mackay, 2009, 32)[10]. 동물공포증의 발병은 일반적으로 6~9세 사이이며, 위험이나 해로움에 대한 두려움, 혐오감이 포함된다(Milosevic & McCabe, 2015, 268)[9].

### 3. 연구 방법

#### 3.1 사례연구

사례연구는 사례의 독특성과 사례 자체를 이해시키는 목적을 가진다. 특정 사례를 선택하여 다른 사례들과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사례가 어떤 것인지 잘 알도록 하는 것이다(Stake, 2000, 29)[14]. 즉 사례연구는 심도 있는 서술과 분석을 진행하여 깊은 이해를 제공하고자 할 때 사용된다(Creswell, 2012, 117)[11].

특히 현상과 관련된 상황 조건들에 대한 깊은 통찰이 필요할 때 사용되는 것이 적합하다(Yin, 2016, 44)[15]. 그래서 본 연구는 동물공포라는 현상과 그 현상의 상황 조건인 아버지에 대한 공포 심리를 이해하기 위해 사례연구를 실시하였다.

사례연구 중 Robert Stake(2000, 23-24)[14]의 연구 방법을 적용하였다. 사례의 본질에 흥미를 가지는 본질적 사례연구(intrinsic case study), 사례를 통해 어떤 것을 성취하기 위한 도구적 사례연구(instrumental case study), 개별적 사례 연구들 간에 일치점을 찾는 집합적 사례연구(collective case study)로 나뉜다. 이 중에서 사례 자체보다 논쟁적 질문에 흥미를 가지고, 쟁점이 지배적인 것이 도구적 사례연구이다(Stake, 2000, 43)[14]. 본 연구는 “동물 공포를 겪고 있는 여성의 어린 시절 아버지에 대한 경험은 동물 공포와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는가?”라는 쟁점을 사례를 통해 알아보기 위해 도구적 사례 연구 방법을 사용하였다.

#### 3.2 자료수집

자료수집 과정에서 사례의 정의, 연구 문제, 연구 참여자의 신원, 자료 출처 등을 고려하였으며, 면담, 원자료 기록 및 분류, 쟁점 협의, 연구 참여자의 동의, 윤리, 절차, 익명성 등을 알렸다(Stake, 2000, 88-100)[14]. 연구 참여자는 44세 중년여성으로 지렁이 공포증(earthworm phobia)을 겪고 있고, 지렁이 공포의 발생 원인과 시기에 대해서 알지 못하였으며, 대략 초등학교 5, 6학년부턴 증상이 나타났다고 기억하고 있었다. 자료를 포화상태에 도달하도록 수집하였으며, 수집 기간은 2023년 4월 9일부터 10월 3일까지 약 6개월이다. 쟁점적 질문을 반영하는 반구조화된 질문지를 가지고 시행되었고, 면담은 총 13회, 회당 3시간 소요되었다. 반구조화된 질문은 불안이 유발되는 상황, 대처, 고통, 기간 등의 내용으로 지렁이 공포증에 대한 감정, 생각, 행동을 나타내는 것과, “어린 시절 아버지는 어떤 분이신가요?”, “아버지에 대한 감정은 어떤가요?” 등 참여자의 어린 시절 아버지에 대한 심리적 특성을 표현하도록 구성되었다. 연구 참여자의 말 자체보다 의미가 중요하기 때문에 녹음하기보다 듣고 기록하면서 명료화에 중점을 두었다(Stake, 2000,

107)[14]. 그래서 상대적으로 명백한 묘사를 제공하는 사건들을 기록하고 연구 참여자에게 확인하여 명료화하였다.

### 3.3 자료 분석

사례연구는 자료수집과 분석의 토대가 될 수 있는 이론적 명제를 먼저 전개하는 것이 타당하다(Yin, 2016, 45)[15]. 그래서 ‘동물 공포는 어린 시절 아버지에 대한 공포가 전위된 대상’(Freud, 2006, 272)[16]이라는 이론적 명제를 기반으로 연구 참여자의 어린 시절 아버지에 대한 심리적 특성을 분석하려고 했다. Stake(2000, 115-123)[14]에 의하면 분석은 분해를 뜻하고, 분해된 부분에 의미를 부여하고, 그 모든 의미를 이해하는 것이 자료 분석이다. 사례에 의미를 부여하는 방식은 직접적으로 해석하는 직접적 해석(direct interpretation)과 여러 가지 경우들을 모으는 범주적 합산(categorical aggregation)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특성을 범주화하고 합산하는 범주적 합산 방식을 사용하였다. 자료 분석은 해석의 다양성을 고려하여 원 자료를 검토하면서 자료의 유형(patterns of data)을 찾았다. 사례의 의미를 일관성 있게 탐색하기 위해 ‘상응성(correspondence)’에 주의를 기울여 면담 내용을 부호화하고 빈도들을 합산하며 유형(patterns)을 찾았다. 이렇게 원자료들을 상응감을 가지고 분석하였다.

## 4. 연구의 평가 기준

질적연구의 타당성을 확립하기 위해 Maureen Angen(2000, 378-395)[12]의 윤리적 검증(Ethical Validation)과 실질적 검증(Substantive Validation)을 평가 기준으로 삼았다. 질적연구를 포괄하는 개념으로 해석주의를 이해한 Angen은 대화적 맥락에 맞춰져 있는 해석주의적 접근이 인간 이해와 사회적 의미를 밝힐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 관점에서 그녀는 실용적이고 도덕적인 관심이 과학을 평가하는 데 가장 중요하고 고려 사항이 되기 때문에 방법론적 기준보다 탐구의 도덕적, 실제적 토대에 더 의존해야 한다고 지적하였으며, 그에 따라 윤리적 검증과 실질적인 검증이라는 유형을 제시하였다.

윤리적 검증은 모든 목소리를 들을 수 있는 공정한

맥락을 촉진하기 위한 접근과 생산적인 가능성(generative promise)이 있어야 한다. 연구자로서 제기하는 질문에 참여자는 실질적이고, 생산적이고, 변형적이며, 비독단적인 답변을 제공해야 한다. 이를 위해 연구자는 연구 참여자가 겪는 동물공포증에 대한 질문에 비도덕적인 가정에 대한 선입견을 배제하려고 하였고, 제기하는 질문에 동물공포증에 대한 실질적 경험과 참여자 자신만의 독특한 경험이 잘 나타나도록 하였다. 실질적 검증은 주제에 대한 자신의 이해, 다른 자료에서 파생된 이해, 연구의 서면 기록을 의미한다. ‘주제에 대한 자신의 이해’에서 연구자는 동물 공포에 대한 연구자의 입장 및 편견을 경계하여야 동물 공포에 대한 추가적 이해를 방해하는 것을 피할 수 있다. 그래서 참여자와의 면담과 결과 해석에서 자기반성적 태도를 취하였다. ‘다른 자료에서 파생된 이해’는 선행연구와 다양한 자료를 통해 동물 공포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혔다. ‘연구의 서면 기록’은 독자들이 연구의 신뢰성을 판단하기 위해 문서화되어야 하는 것이다. 연구에 대한 서면 설명, 결과 해석에 대한 증거 제공, 기록 보관, 이론 확인 그리고 수정을 명시하여 명료성과 일관성을 추구하였다.

## 5. 연구 결과

### 5.1 동물공포증 진단 기준과 특성

진단기준 A: 공포와 불안이 특정한 상황이나 대상에 국한되었다.: “뱀도 구더기도 괜찮다. 다른 것은 다 괜찮은데 지렁이는 죽은 것도 싫고, 단어나 그림도 못 본다.”

진단기준 B: 공포 자극을 만났을 때 즉시 공포나 불안을 유발하였다.: “산책하다가 주변 벤치 밑에 지렁이를 보았는데 순간 충격을 받고 움직이지 못할 것 같았다.”

진단기준 C: 대상을 회피하거나 회피할 수 없는 경우 극심한 공포와 불안을 지닌 채 그 상황을 참아냈다.: “봄비가 내리고 있었는데 실지렁이가 땅과 시멘트 사이에 나와 빗물에 반짝였다. 어찌할 수 없어 도로에서 발을 못 떼고 서 있었는데, 친구가 오기를 기다렸다.”

진단기준 D: 공포가 필요 이상으로 사회문화적 맥락에서 받아들여지는 것보다 심했다.: “생물 그림을 아이를 위해서 벽에 붙여주고 싶은데 자연 관찰 책 표지에 지렁이가 엄청 커서 왜 지렁이를 크게 그렸냐고 출판사에 전화한 적도 있다.”

진단기준 E: 공포, 불안, 회피 반응이 6개월 이상 지속되었다.: “지렁이 공포가 (초등) 5.6학년 때 시작된 것 같다. 지금까지(44세) 그렇다.”

진단기준 F: 공포로 인해 사회적, 직업적, 또 다른 영역에서 현저한 고통이나 손상을 초래했다.: “사무실 일이 바빠도 지렁이가 있다면 아주 멀리 피해 갔다. 늦게 출근할 수밖에 없었다. 아이가 아팠을 때도 지렁이 때문에 병원에 늦을 때도 있었다.”

진단기준 G: 공포증이 장애나 또 다른 정신질환으로 설명되지 않았다.: “다른 공포나 불안, 우울과 같은 기분도 없고, 대인관계, 심리적 문제가 없다. 술이나 담배도 하지 않는다. 중독도 없고 집착도 없다.”

## 5.2 동물 공포와 아버지에 대한 심리분석

범주적 합산 절차에 따라 원자료를 분해하였다. 분해된 자료에서 의미 단위 208개가 구성되었고, 의미 단위에서 유형을 찾고, 상응성에 따라 6개로 범주 합산하였다.

### 5.2.1 두려운 존재

아버지는 무섭고 두려운 존재였다. 가정에 불안을 조성했다. 가족 구성원을 자신의 방식으로 통제하였으며, 폭력적이고 위협적인 인물이었다.

“어릴 때 아빠는 때리는 것은 없었지만, 무서웠다. 인상이나 목소리가 무섭게 말했다. 늘 지적했고, 자식에게 정이 없었다. 엄마, 나, 동생은 아빠 없는 것이 좋았다.”

“아버지라면 말하기 싫다. 어릴 때는 두렵고 불안했고, 가족들이 즐겁게 놀 수 없었다. 아버지 눈치 보느라. 어릴 때 웃놀이를 하다 엄마와 동생, 내가 아빠 차(불빛) 보이면 각자 방으로 급히 뛰어갔다. 그리고 아빠 눈치

에 \*\*할머니 집에 가면 즐거움보다 불편했다.”

“6, 7살 쯤인가 나를 던지려 했다. 교회학교 시간에 발표 못한 것 때문이었는데 잊고 싶다. 아빠는 진짜 엄했다. 신체적 접촉 싫었고 안는 것 싫었다. (두려움으로) 가슴이 두근거렸다.”

“식구들은 아빠의 요구사항을 늘 맞춰주었다. 아빠는 자기 생각, 방법을 주입시켰고, “너 내 말에 무조건 복종해”라고 했다. 주인과 종이였다. 따뜻한 것 없었다.”

“폭력적이었고 화해하는 꼴을 못 봤다. 자신의 생각과 다르면 틀어졌다. 한번은 목사님을 무릎 꿇리는 것을 보기도 했다. 화를 안 냈으면 하는 것이 간절한 소원이었다.”

“한마디로 독선적이다. 자기 말만 옳다고 했다. 목소리는 얼마나 큰지, 손가락질이 위협적이었다. 보이는 것은 연장이었고 필요에 따라 사용하는 것이 사람들이었다.”

### 5.2.2 늘 따라다니는 여자 문제

연구 참여자 아버지는 주변 여성들과 이성 문제를 자주 일으켰고, 이 모습이 좋지 않은 소문을 만들어 냈다. 아버지에게 각별한 관계의 여성이 늘 있었다고 연구 참여자는 기억했다. 그들의 지속한 대화와 과도한 신체접촉을 문제로 인식하고 있었다.

“예외가 없었다. 어김없이 다른 여자가 있었다. 꼭 여러 명의 여자들 속에 유독 잘 따르는 여자가 있었다. 그 사람이 한참 보이다가 어느 날에는 없고, 얼마 가지 않아 또 다른 여자가 아빠 옆에 있었다. (신체)접촉도 많았다. 가지가지 했다. 더러운 소문이 날 정도였다.”

“이성 문제 복잡했다. 김장철이 되면 동네 여자들이 아빠 좋다고 오고, 얼마나 친하게 하는지 아빠도 그랬다. 아버지는 여자에게 인기가 많았다. 농담도 잘했고, 특히, 아빠가 좋아하는 여자 이름이 \*\*이 인데, 주야라고 불렀다. 예쁜 여자, 잘 웃는 여자들에게 특히 잘해주었다.”

“아빠는 질질 흘리고 꼬드기고 농담을 잘했다. 참 저질스러웠다. 동네 이장, 교회 장로라서 아버지를 좋아하는 것 같기도 하지만, 잘 챙겨주고, 정 많고, 말 잘하였다. 손잡고 장난으로 다리나 허리 잡고 킁킁 웃고, 커피나

음료를 마신 잔에 서로 입 맞추고 좋다고 웃었다. 미친 년 놈.”

“엄마 아빠는 천날만날 싸웠지만, 다른 여자에게는 어찌나 잘하는지, 또 잘 나누어 주었다. 집에 있는 것을 왜 딴 여자에게 주는지 모르겠다. 그리고 그 여자도 뭔가 잘 가져왔다.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은 엄마도 가만히 있었다는 것이다. 다들 정상이 아닌 것 같았다.”

### 5.2.3 은밀한 부정행위와 충격

아버지와 동네 여성과 성행위를 목격한 연구 참여자는 충격을 받았다. 두 사람의 은밀한 성행위는 어린 나이의 연구 참여자에게는 낯설고 두려움을 느끼게 했다.

“부엌인데 뒤편에 작은 문이 있는 곳에서 성관계하는 것을 보았다. 어릴 때인데, 한 5살 때쯤인 것 같다. 그때는 그것이 성관계인지 몰랐다. 이상하면서 뭔가 무서웠다.”

“아버지 성기를 보았는지 기억은 없다. 집 한쪽 구석에서 집에 자주 오는 동네 아줌마인데 뒤에서 그것을(성관계) 했다. 그리고 어린 내가 (성관계를) 몰랐지만 분위기가 이상했고, 엄청 충격을 받았다.”

“(성관계 중) 여자의 얼굴이나 포즈라고 해야 하나. 서로 주변 신경을 쓰는 뭐 그런 것 같았다. 둘다 뒤라고 해야 하나 은밀하다고 해야 하나, 눈치를 본다고 해야 하나, 나는 불안하면서 꼼짝 못하고 숨어서 봤다.”

“그 여자와 아빠는 내가 있는지 몰랐지만 내가 (성관계 보는 것) 들기만 안 될 것 같았다. 몸은 움직이지 않았고, 숨고 싶었다. 기분이 엄청 째뼸했다. 충격 먹은 것이겠죠. 모르겠지만 엄청 큰일 났다고 무서워한 것 같다.”

### 5.2.4 처벌에 대한 두려움

연구 참여자에게 아버지는 두려운 존재였으므로 아버지의 부정행위에 대해 분노하기보다 처벌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었다. 아버지의 부적절하고 용인할 수 없는 행동은 참여자의 심리를 불안하게 만들었다.

“(성관계) 본 것을 엄마에게 말하지 못했다. 말하면 아버지가 날 때릴 것 같았다. 아버지에게 대들 수 없었다. 반항이나 무슨 말을 하는 것은 생각도 못 했다.”

“엄마도 그런 아버지를 아는 것 같다. 엄마도 두려웠는가? 싫다. 아빠는 내가 (아빠의 부적절한 성관계를) 본 것을 아는 것 같았다. 혼날 것 같아 눈치를 늘 보았다.”

“아버지가 없으면 하는 마음과 오랫동안 싸워왔다. 같이 있는 것이 곤욕이었다. 늘 혼날 것 같았다. 특히 그 후로(성관계 목격한 후) 죽을 것 같았다.”

“어릴 때 아빠를 미워한 적이 없는 것 같기도 하다. 미워한 것은 다 컸을 때 고등학생 때이다. 어릴 때는 미움보다 두려움, 벌, 화냄, 이런 감정들이 쌓여있었다.”

### 5.2.5 지렁이 상징과 공포 전위

지렁이 공포가 시작된 시점과 원인에 대해서 알지 못했지만, 아버지의 성관계 사건으로 추측했다. 지렁이는 아버지의 성기를 상징하고 아버지에 대한 공포가 지렁이라는 대상으로 전위되었음을 이해될 수 있다.

“아주 어릴 때 지렁이 공포는 없었다고 엄마가 말했다. 마당에서 밭에서 혼자 놀았다. 벌레도 많았고, 개구리도 주물렀다고 했다. 거미도 가지고 놀았다. 언제부터인가 지렁이를 보는 것이 두려웠다. 초등학교 5학년쯤인 것 같은데, 기억이 틀릴 수도 있다.”

“아버지의 성기를 본 기억은 없다. 그러나 만약 지렁이에 대한 공포가 무엇인가 연결되었다면 그때의 충격(다른 여자와 성관계한 아버지)일 것이다. 지렁이가 남자 성기와 비슷하다고 본다. 그리고 상징적으로도 그렇고.”

“성에 대한 도덕적인 것보다 남자 여자가 성행위 자체에 충격을 받았겠죠. 어린 나이에 신음과 그 행동이 충격이었을 것이고, 아버지 성기를 보았다고 할 수 없지만, 5살 되면 남녀 성기에 대해 알지 않을까요. 지렁이 같네요.”

“지렁이를 왜 무서워하는지. 보통 바퀴벌레 싫어하잖아요. 그거랑 비슷한 것 아닌가 했죠. 지렁이와 무슨 사건도 없는데 왜 그렇게 무서웠는지. 아빠 사건이 너무 공포스러웠으니 어린 아이가 그렇게라도 하려고 한 것이겠죠.”

### 5.2.6 지렁이 공포증

연구 참여자의 공포는 지렁이에만 국한되었으며,

지렁이를 보았을 때 극심한 불안이 나타났다. 공포 자극에 대해 회피하거나 참아냈으며, 지렁이 공포가 사회적으로 직업적으로 고통이나 손상을 초래했다. 지렁이에 대한 공포반응이 30년 이상 지속되었다.

“지렁이에 대한 아무런 충격적 사건이 없는데도 지렁이는 죽은 것도 싫다. 꿈틀이 과자도 지렁이를 연상하게 해서 싫다. 축축해 보이는 땅도 싫다. 땅을 보고 다니는 데도 지렁이가 나타나면 충격을 받아서 몸이 굳어진다.”

“엄마, 아빠, 동생, 친구, 숙모 내가 지렁이 공포가 있는 것 알고 있다. 운전 중에 지렁이가 차바퀴에 붙었는지 걱정이다. 풀밭이나 비 오는 날 벤치 밑과 같은 곳은 둘러서(피해서) 간다. 5학년부터 지금까지(44세) 그랬다.”

“산책하다가 그 주변 벤치 밑에 지렁이를 보았는데 급히 벤치 위에 올라가서 큰 소리로 사무실 언니에게 소리쳤다. 순간 충격을 받고 움직이지 못할 것 같았다.”

“실지렁이가 땅과 시멘트 사이에 나와 빗물에 반짝였다. 어찌할 수 없어 도로에서 밟을 못 떼고 서 있었는데, 친구가 오기를 기다렸다.”

“지렁이가 해를 끼치지 않는다는 것도 알지만 지렁이 이름만 들어도 불안하고, 길을 가다가 지렁이를 보면 무서워서 못 간다. 비가 오면 축축한 땅을 피해 다닌다. 나한테 지렁이 사진 보여주면 무섭고 엄청 화가 난다.”

“사무실 일이 바빠도 지렁이가 있다면 아주 멀리 피해 갔다. 늦게 출근할 수밖에 없었다. 아이가 아팠을 때도 급히 가야 하지만 지렁이 때문에 병원에 늦을 때도 있었다.”

### 5.3 자연주의적 일반화

아버지는 두려운 존재였다. 불안을 조성했다. 가족을 자신의 방식으로 통제하였으며, 폭력적이고 위협적이었다. 아버지는 주변 여성들과 이성 문제를 자주 일으켰으며, 각별한 관계의 여성이 늘 있었고 그들의 지속적인 대화와 과도한 신체접촉을 연구 참여자는 자주 목격하였다. 5세쯤 아버지와 동네 여성과의 성행위를 목격한 연구 참여자는 충격을 받았다. 그러나 아버지는

무서운 존재였으므로 아버지의 부정행위를 알고 있는 것이 별 받을 것이라는 처벌 불안과 공포를 일으켰다. 참여자는 지렁이 공포가 시작된 시점과 원인에 대해서 알지 못했지만, 아버지의 성관계 사건과 그 충격으로 추측했다. 지렁이 공포는 아버지에 대한 전위된 공포 반응으로 인식한 것이다. 아버지의 성기를 상징하는 지렁이와 두려운 아버지를 반영하는 공포가 지렁이 공포증을 만들었다. 연구 참여자의 공포는 지렁이를 보았을 때 극심한 불안이 나타났다. 공포 자극에 대해 회피하거나 참아냈으며, 지렁이 공포가 육아와 직장 업무 그리고 대인관계까지 해를 끼쳐 사회적으로 직업적으로 30년 이상 고통과 손상을 초래하였다.

## 6. 논의

본 연구에서 동물공포증을 겪는 여성 연구 참여자로부터 아버지에 대한 심리분석을 목적으로 6개의 범주가 도출되었다. ‘두려운 존재’, ‘늘 따라다니는 여자 문제’, ‘은밀한 부정행위와 충격’, ‘처벌에 대한 두려움’, ‘지렁이 상징과 공포 전위’, 그리고 ‘지렁이 공포증’이다. 지렁이는 아버지의 한 측면을 상징했으며, 공포의 대상인 아버지에 의한 처벌 불안이 공포증을 불러일으켰다. 연구 참여자의 지렁이 공포는 아버지 성기에 대한 전위로 이해될 수 있다. 아버지와 낮은 여자와의 성관계를 목격하고 충격을 받은 참여자는 폭력적이고 무서운 아버지를 미워하고 분노하기보다 별 받을 두려움에 처했고, 그 공포는 아버지의 성기를 닮은 지렁이에게 전위되어 지렁이 공포증을 발생시켰다. 아버지에 대한 두려움이 딸들에게 전이된 꼬마 한스 사례처럼(Freud, 2015, 69)[19], 연구 참여자의 지렁이 공포증도 지렁이와 관련이 없었고, 아버지에 대한 두려움이 지렁이에게 전위된 것이었다. Freud (2016, 359)[20]가 언급한 것처럼 동물에 대한 아이들의 공포증은 아버지에 대한 공포증이었고, 동물공포증의 동물들은 아버지의 대리물인 것이다(Freud, 2017, 480)[21].

공포증은 갈등을 풀려는 시도였을 것이다(Freud, 2009, 225)[18]. 그러나 연구 참여자는 아버지에 대한 공포감을 지렁이에게 전위시킴으로 아버지에 대한 두려움에서 벗어났지만 지렁이에게 공포가 옮겨져서 불쾌를 없애는 데는 실패한 것이 되었다. 동물공포증에

서 나타나는 억압은 그 표상을 다른 것으로 대체한 것에 불과한 것이어서 근본적으로 실패로 끝난 억압이다. 그래서 동물공포증은 단순 도피라 볼 수 있다(Freud, 2009, 150)[17]. 또한 동물공포증은 방어과정이다(Freud, 2020, 97)[4]. 방어의 주목적은 이차적 고통을 피하는 것이고(Freud, 2020, 85)[4], 꼬마 한스의 사례처럼 한스가 말에 대한 공포증을 만들어 낸 것은 그에게 큰 이득이 되었다(Freud, 2015, 177)[19]. 이처럼 연구 참여자의 지령이 공포는 억압된 두려운 기억이 되살아나는 것을 대체하였고, 그로 인해 아버지와의 관계를 지속할 수 있었다.

한편으로 Chrzanowski(2015, 25)[7]는 동물 공포에 대한 기본적 위협은 가족의 병적 분위기에 있다고 보았다. 그는 공포증 현상은 불안정한 가족 관계에 뿌리를 두고 있다고 주장하였다. 그래서 공포증의 상징은 병적 가족 분위기의 은유적 변형으로도 설명된다.

## 7.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동물 공포를 겪는 여성의 어린 시절 아버지에 대한 심리적 특성을 이해하는 것이 목적이다. ‘동물 공포는 어린 시절 아버지에 대한 공포가 전위된 대상’(Freud, 2006, 272)[16]이라는 이론적 명제를 기반으로 “동물 공포를 겪고 있는 여성의 어린 시절 아버지에 대한 경험은 동물 공포와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는가?”라는 연구 쟁점을 도구적 사례연구를 통해 알아보고자 하였다. 연구 참여자의 지령이 공포는 아버지에 대한 내적 두려움을 의식할 수 있는 외부 대상으로 공포를 전위시킨 것이었다. 지령이는 아버지의 한 측면을 상징하고 있었고, 아버지에 대한 두려움과 처벌 불안으로 공포증이 나타났으므로 동물 공포와 공포의 전위 관계를 다시 밝혔다.

이에 따른 연구 결론을 내리면, 첫째, 연구 참여자의 지령이 공포는 벗어나지 못한 어린 시절의 아버지에 대한 두려움이었고, 오랫동안 억눌린 두려움과 불안이 다시 발현되는 것을 대체하는 것이었다. 즉, 지령이 공포는 도피이고, 방어인 것으로 이해되어야 한다. 따라서 동물공포증 환자에게 나타나는 기피 행위, 마비, 공황, 비논리적 두려움과 같은 외적 요소와 더불어 내적 갈등에 대한 통찰이 필요하다. 둘째, 공포증은

불안정한 가족 관계에서 원인을 찾을 수 있다. 가장 중요한 인물이 친구인지 적인지에 대한 갈등과 기본적인 신뢰 부족이 문제가 된다(Chrzanowski, 2015, 47)[7]. 그러므로 동물공포증은 병리적 가족구조와의 관계 속에서 이해되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는 질적 사례연구로 일반화에 목적을 두지 않으므로 다양한 후속 연구가 필요하다. 동물 공포가 뚜렷한 외상 사건 이후 발생한 경우와 외상 사건 없이 발생한 경우에 대한 비교 연구와, 동물에 직면했을 때 명백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경우와 심각한 해를 입히지 않는 동물 공포에 대한 경우를 세심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또한 불안과 관련된 장애는 생물학적, 심리적, 사회적 요인의 복잡한 상호작용을 통해 발생되기 때문에 다양한 요인에 대한 분석이 필요하다.

## 참고문헌

- [1] 권석만, “현대 이상심리학 3판”, 서울, 학지사, 2023.
- [2] 김은정, 이지영, “특정 공포증: 별것도 아닌데 왜 이렇게 두려울까”, 서울, 학지사, 2016.
- [3] 김청송, “사례 중심의 이상심리학”, 수원, 싸이북스, 2015.
- [4] A. Freud, “자아와 방어기제”, 김건중 옮김, 파주, 열린책들, 2020.
- [5] American Psychiatric Association, “Diagnostic and Statistical Manual of Mental Disorders, Fifth Edition, Text Revision”, Washington, DC, American Psychiatric Association, 2022.
- [6] E. J. Bourne, “The Anxiety and Phobia Workbook 6 edition”, New Harbinger Publications, 2015.
- [7] G. Chrzanowski, “Psychotherapy with Patients with Phobias”, International Psychotherapy institute, 2015.
- [8] H. Kohut, “자기의 분석”, 이재훈 옮김, 서울, 한국심리치료연구소, 2002.
- [9] I. Milosevic & R. E. McCabe (eds), “Phobias: the psychology of irrational fear”, Greenwood, 2015.
- [10] J. Mackay, “Phobias (diseases and disorders)”, Lucent books, 2009.
- [11] J. W. Creswell, “질적연구방법론”, 조홍식 외 옮김, 서울, 학지사, 2012.

- [12] M. J. Angen, "Evaluating Interpretive Inquiry: Reviewing the Validity Debate and Opening the Dialogue", *QUALITATIVE HEALTH RESEARCH*, 10(3), pp.378-395, 2000.
- [13] P. J. Norton & M. M. Antony, "The Anti-anxiety Program 2 edition: A workbook of Proven Strategies to Overcome Worry, Panic, and Phobias", Guilford Press, 2021.
- [14] R. E. Stake, Robert, "질적사례연구", 홍용희 외 옮김, 서울, 창지사, 2000.
- [15] R. K. Yin, "사례연구방법", 신경식 외 옮김, 서울, 한경사, 2016.
- [16] S. Freud, "정신분석학의 개요", 박성수, 한승완 옮김, 파주, 열린책들, 2006.
- [17] S. Freud, "정신분석학의 근본개념", 윤희기, 박찬부 옮김, 파주, 열린책들, 2009.
- [18] S. Freud, "정신병리학의 문제들", 황보석 옮김, 파주, 열린책들, 2009.
- [19] S. Freud, "꼬마한스와 도라", 김재혁, 권세훈 옮김, 파주, 열린책들, 2015.
- [20] S. Freud, "종교의 기원", 이윤기 옮김, 파주, 열린책들, 2016.
- [21] S. Freud, "예술, 문학, 정신분석", 정장진 옮김, 파주, 열린책들, 2017.
- [22] W. D. Fairbairn, "성격에 관한 정신분석학적 연구", 이재훈 옮김, 서울, 한국심리치료연구소, 2003.

**김 동 태 (Kim, Dong-Tae)**



- 2014년 8월~현재: 한일장신대학교 겸임교수
- 2010년 8월: 백석대학교 상담학(상담학박사)
- 2003년 8월: 영남대학교 심리학(심리학석사)
- 관심분야: 정신분석, 이상심리, 질적연구
- E-Mail: dongtael@hanmail.net